

# 鄭 “대기업 투자·中企 상생을” 李 “친기업 환경 정책 펼칠 것”

## ■ 정동영 - 이명박 경제정책 재대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9일 재벌정책을 놓고 또 다시 격돌했다.

비록 두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정 후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이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대표적인 경제단체를 각각 방문해 자신의 경제철학과 재벌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대선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른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차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만나 '경제살리기'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재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정 후보는 규제개혁에 준하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조석래 회장은 이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엄정한 법집행의 틀 속에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다만 현재 1천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무려 36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기업도 과감한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

청했다.

정 후보는 또한, “노사관계가 안정화되도록 불법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상생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 화답했다. 정 후보는 이와 함께 차별 없는 성장, 가족행복시대 등 자신의 대선 구호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 뒤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 분담 내지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친(親) 기업환경 조성에 대해 의지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후보는 한국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은 30년간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서 이뤄놓은 '은공' 덕분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최근 5년간 투자가 정체상태에 있고, 기업투자도 활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 정권이 정책, 제도상에서 해보고도 노력한 흔적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투자가 과감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이 친기업적이지 못하다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든, 대학이든 리더가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되찾는다면 가장 큰 변화는 친 기업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 지도부 '당 화합' 총돌... 적전 분열?

### 강대표 “당 단합 저해 언사 안돼” 이재오 “아직도 경선하는 줄 아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29일 당화합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적전분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재섭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오 최고위원의 인터뷰 발언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이 최고위원도 비공개 회의 시간을 이용, 여러 발언을 작성한 듯 쓴 언사였다.

강 대표는 의총에서 “필승결의대회에 후보를 모시고 다니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많이 단합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그러나 내 몸이 온기가 안 느껴진다. 경선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우리가 물리적으로 단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학적으로는 아직도 융합이 안 된다”며 작정한 듯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아마존강에서 나비가 한마리 날갯짓하면 그때 일어나는 작은 바람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태풍으로 변한다”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자중자애해야한다. 위로는 후보, 최고위원에서부터 말단 당원까지 화합하기 위해 정말 진심으로 노력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와 함께 “말조심 해야 한다”면서 “오늘 아침 이상한 기사도 나고 했는데, 당 단합을 저해하는 작은 언사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당내 세력’이 있고, 이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 최고위원의 언론 인터뷰를 사실상 비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본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라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껏 목소리를 높여 “경선이 언제 끝났는데 아직도 경선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당이 되겠느냐”면서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이 후보 공격에) 일사불란한 대응이 되지 않는 것도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팔짱을 끼고 있어서 그렇다”고 일갈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이회창 전 총재의 재출마설과 박근혜 전 대표의 최근 행보를 겨냥, “한쪽에선 출마한다고 하고 한쪽에선 자파 모임 산행에 참석하고 있는데 지도부가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어도 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정운찬·박태준·이수성 고사 빅카드 부족·인물난 관측

### ■ 鄭 외부영입 어떻게 되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28일 선거대책위를 꾸리면서 ‘공관’으로 비유된 외부영입 뒤에 시선이 쏠린다.

현시점에서 외부영입은 단순히 선대위 진용을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정 후보의 대외 이미지와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지지기반의 폭을 확장시키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게 캠프측의 기대다.

정 후보측의 외부영입을 주도할 ‘전담장구’는 28일 발족한 인재영입위원회다. 각계에 지면이 넓은 정대철 상임고문과 김덕규 전 국회 부의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정 후보와 직접 ‘교감’하면서 외부인사들과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29일 선대위 첫회의 직후 위원 선인과 역할분담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계,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분야별 접촉을 거쳐 소(小)그룹 단위로 영입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번 외부영입 작업을 대통합을 위한 일종의 ‘길 닦기’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선대위 고위관계자는 “개별적 영입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문국현 후보가 추진하는 신당, 국민중심당 등과의 통합이 보다 중요하다”며 “외부영입 과정에서 이 부분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입작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일방적 영입에 파급력을 갖는 ‘빅카드’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캠프 주변에서 거론된 외부영입 대상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과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이수성 전 총리 등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정치에 관심없다”거나 독자 정치활동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선대위 초기부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아직 결심을 못했고 진대제 전 정통장관의 참여 여부도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국감 향을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이 임인배·김태환 의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한 가운데 29일 오전 국회 과거정통위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유승희 의원이 임인배 위원장을 대신해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당, 李 상암DMC·BBK 의혹 공세 한나라, 국감 계속 참여... 역공모드로

### ■ 국감 후보 검증 공방 격화

국회는 29일 법제사법, 건설교통, 국무,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13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건교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삼양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건설비리 의혹을, 법사위의 서울고·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BBK 주가조작 의혹을 각각 제기하며 검증 공세를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국감기간 내내 신당이 이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중단 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단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대신 신당 정동영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건교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신당의 문학진 의원은 “상암동 DMC 6천억 원 오피스텔 건축허가 비리는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며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무일푼인 ㈜한독산학협동단지(KGIT)의 건축신청을 특혜 승인해 6천억원의 분양수입을 올리도록 해줬는데 시장을 비롯한 고위층의 허락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오피스텔 불법분양 승인으로 6천억원의 개발이익 편취를 방조했다는 주장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하는 음해”라며 “금감원 공시에 따른 총 예상수입액이 6천135억원 규모인데 수익이 6천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나마 모든 개발이익은 학교에 출연된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의 서울고·지검 국감에서 신당의 선병렬 의원은 “최근 BBK 주가조작 사건에 이 후보가 결정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주가조작이라는 범죄의 중심

에 있는 사람이 ‘경제대통령’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상암동 DMC 특혜 의혹과 관련, “윤여덕 KGIT 대표는 전북 안주 출생으로 전주고를 졸업했고 김대중 정권 대부터 정치권, 특히 당시 여당 실세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또 2000년 12월 당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인 정동영 후보는 KGIT 설립을 자문하는 ‘한독산학협동위원회’ 설립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정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늘의 국감 (10월 30일)  
▲ 행정자치위 = 전라남도 청(오전 10시·도청)

### 산행안내

10월 30일 (화요일) 산행 안내

● 산행 코스: ...

● 산행 시간: ...

● 산행 장소: ...

● 산행 준비: ...

● 산행 주의사항: ...

### 12월 15일 시험력정!!

돈되는 자격증!! 초창기 시험을 노려라!!

## ‘부동산대출중개사’가 뜬다!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협회법(자격)...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협회법(자격)...

●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 12월 15일 시험력정!!

돈되는 자격증!! 초창기 시험을 노려라!!

## ‘부동산대출중개사’가 뜬다!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협회법(자격)...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

●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협회법(자격)...

●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 학생·주부·퇴직자들에게 인기!!